

매일이 즐거운  
일산 할머니

## ‘박영자 유튜버’



# YouTube Creator

“여러분 안녕하세요.

일산 할머니 인사드려요.”

카메라를 들고 능숙하게 인사하는

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다.

‘일산 할머니’라는 닉네임으로

활동하는 박영자 씨(69세).

젊은 사람들 부럽지 않은 왕성한

활동으로 구독자 2,000여 명을

보유했다.(6월 말 기준)

최근에 유튜브 승인을 받아 더욱

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

크리에이터 박영자 씨를 만나본다.

글 편집부 / 사진 이현재

### 하루하루가 즐거운 요즘

2019년 7월 ‘오늘은 우영조림 어떠세요?’란 첫 동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갓 일 년이 된 새내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영자 씨. 영자 씨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포토샵, 파워디렉터 등 6~7개 과목을 수강하며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학생이었다. 어느 날 복지관을 통해 국내 한 기업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 유튜브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.

“처음에는 영상 편집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봤어요. 동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노력하다 보니 2,000명이 넘는 구독자 친구들이 생겼죠. 부산, 용인, 수원 등 나를 보러 찾아오겠다는 구독자들이 많아요. 70세를 앞둔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요새는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.”

### 내 직업은 ‘유튜브 크리에이터’

영자 씨의 직업은 ‘유튜브 크리에이터’다. 결혼 후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온 영자 씨가 50여 년 만에 갖게 된 첫 직업이다. 어떤 동영상을 찍을까 고민하던 영자 씨는 날마다 해왔던 요리를 선택했다. 그렇게 시작한 영자 씨의 ‘오늘 뭐 먹지?’ 요리 동영상은 현재 77개이고, 일상과 실시간 방송까지 포함하면 일 년 새 총 126개의 동영상을 촬영·편집해 업로드했다. 동영상마다 달린 수많은 댓글을 통해 ‘일산 할머니’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. 영자 씨는 앞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힘닿는 데까지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.

“여러분, 유튜브 하세요. 집에서 지루하게 시간 보내면서 영감님한테 바가지 금지 말고, 전화 안 한다고 자식들한테 잔소리하지 말고요. 제가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이 전화와도 바쁘다고 끊으라고 해요.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우리 노후를 그렇게 빛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유튜버 강추해요! 강추!”

### 유튜브 크리에이터

동영상 플랫폼인

‘유튜브(YouTube)’에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.

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으며

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을 통해 광고 수익을 내기도 한다.

